


6주차 | 학습목차



**학습목차**

01.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  - 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  - 개간, 간척 노동
  - 감시와 구타
02.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  - 합동 결혼 추진
  -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
  - 구술 일화
03. '개척단'의 농지 분배와 이주/정착
  - 농지조성 현황
  -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
  -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

**04.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**

- 서산 개척단의 해산
- 정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
- 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
**05.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**

- 납북귀환 어부란?
- 사건의 배경
- 연행
- 강제 심문
-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
**06.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**

- 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
- 지역에서의 고립
- 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- 가정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- 최근의 상황

6주차 |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




## 5차시

#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6주차 | 학습목표

5차시.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**학습목차**


**학습목표**

-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현황과 그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.
- 국가로부터 겪은 피해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.

**학습내용**

- 납북귀환 어부 현황과 배경
- 귀환 후 연행과 강제 심문

6주차 |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



# 납북귀환 어부란?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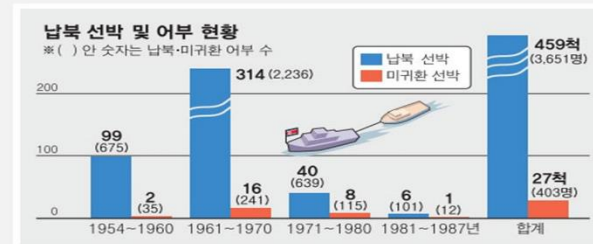
## 남북귀환 어부란?

-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북한의 배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다가 다시 남한에 돌아온 어부
-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도중이나 조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비나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고서 납치가 되어 북한에서 짧게는 며칠, 길게는 1년 이상 머물다가 오게 된 것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남북귀환 어부란?



[출처01] 강원일보, 국무조정실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남북귀환 어부란?

구분	납북			귀환			미귀환(누계)		
	계	동해	서해	계	동해	서해	계	동해	서해
어선(척)	459	165	294	426	155	271	33	10	23
어부(명)	3,648	1,527	2,121	3,230	1,364	1,866	418	163	255

[출처02] 강원도청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남북귀환 어부란?

- 북한에서 피해입은 것이 아님
- 북한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수사 대상
- 불법 구금, 고문, 구타
- 감시, 취업 및 거주지 제한, 가족 및 친척에게도 적용



경향신문

남북했다가 1969년 5월28일 귀환하는 어선에 앉아 있는 어부들

[출처03] 경향신문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# 사건의 배경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## 사건의 배경

- 한국전쟁 정전협정(1953.7.27)에서 해상분계선 미정
  - 육지의 군사분계선 설정과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음
  - 유엔군도 해상분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에 소극적

정전 당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전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해상분계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함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## 사건의 배경

- 한국전쟁 정전협정(1953.7.27)에서 해상분계선 미정
  - 해상분계선에 대해 특히 서해 지역은 남북한의 주장이 다름
  - 북한은 2000년대에 무력 도발
  - 군사분계선을 바다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상분계선으로 하고, 어로저지선, 어업통제선을 설정

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## 사건의 배경

- 어업 조건
  - 당시 조업기술로는 바다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음.
  - 어량이 많은 곳을 따라서 조업, 어업을 하지 못하는 선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사건의 배경

- 간첩죄 적용
  - 간첩 활동 의심
  - 수산업법 위반 + 반공법, 국가보안법과 같은 처벌법 적용
  - 경비 책임 묻지 않고 어부들에게 떠넘김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연행

- 강원도 지원 민관합동추진단(2022) 활동
  - 동해안 지역 피해자 구술
- KBS다큐멘터리 ‘해무’

## 연행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연행

- “집을 못 왔죠. 뭐 속초경찰서 앞에 그 무슨 여관이더라고. 지금 뭐 지금 하도 하도 오래 돼가지고 그 여관이 기억이 잘 안 나네. 그 여관에서 이제 우리 열한 명이, 열일곱 명이 같이 여관 숙소를 같이 있었어요.”  
 “그거 뭐 속초 딱 오더니 버스 딱 타고 뭐 해동여인숙이 거기에 한 칸 딱 갖다 놓더니 그때 부터 이제 조사 시작이야.”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연행

- “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뒤에 이렇게 또 달아서 또 뒤에 사람 그렇게 한 거, 그래서 이렇게 버스 같은 데 어디 태웠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.”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강제 심문

- 유도 심문  
“아, 질문 주목적이 그거야. 거기 가서 뭘 배웠으며 뭘 여 와서 지령을 받아 왔냐. 그 얘기가 그냥. 애들이. 조사가 그 뿐이 더 있냐.”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## 강제 심문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강제 심문

- 반복 질문  
“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로 자꾸만 캐묻고 캐묻고 하니까 고의로 가면 누구나 고의로 가는 사람은 없어. 없고 다 고기 잡다가 다 넘어간 거지 고의로 넘어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 명도 없어. 다 고기 뭐 이렇게 금 그어 있는 것도 아니고.”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강제 심문

- 긍정, 부정할 수 없는 심문

“지령을 받은 거. 받아 왔지 않냐. 특수지령 대라 그러는 데 없잖아요.  
교육받은 거 외에는 그렇다고 이제 또 유도 심문을 합니다.  
“야 누구는 홍길동이는 됐는데 니 임꺽정이 너는 왜 안 받았냐.” 아닙니다 해도 맞고  
또 인정해도 “이 새끼 너만 또 왜?”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또 때리고 그런 상태였어요.  
그러니까는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고 그래요.”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##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
- “그렇게 해서 거의 십사일동안 저희가 감금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당했지요. 무자비하게.”  
“다른 사람들 내가 구타. 같은 여관에 자면서도 저가 잠을 못 잤어요. 옆에서 맞는 소리에. 소리 지  
르고 막 고통받는 소리에 잠을 못 잤는데”  
“그나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어서 아파가지고 꼼짝 못했던 거 그런 생각은 나지.”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
- “그렇게 다 검사들이 진술을 해가지고 죄를 더 만들어 놓고, 사람을 개도 그렇게 개를 누가  
그렇게 때려요. 안 때리잖아요. 사람을 그렇게 물고문까지 다 하고.”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
- 1960~70년대 박정희 정권
  - 정부를 비판하거나 혹은 관련 없는 사람에게도 간첩 조작
  - 수사 과정에서 고문, 구타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
- 1960~70년대 박정희 정권
  - 남북 대립을 정치에 활용, 민주화 요구 묵살
  - 허위자백 받기 위해 구타, 고문 등 가혹행위
  - 왜 민주화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?

[출처04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학습정리

-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의 발생 배경과 당시 인권 침해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5차시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

## 다음 차시에서는

- 납북귀환 어부 사건 피해의 장기화

SOURCES



- [출처01] 강원일보  
<https://www.kwnews.co.kr/page/view/2021101100000000020>
- [출처02] 강원도청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  
<https://www.provin.gangwon.kr/gw/livestock/sub09?articleSeq=241786&mode=readForm&curPage=80&boardCode=BDNEWS07>
- [출처03] 경향신문  
<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202231523001#c2b>
- [출처04] 강원도, 강원민주재단, <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심포지엄 자료집>, 2022



YONSEI  
UNIVERSITY  
MIRAE CAMPUS



기획·조정  
이봉규·정다영

교안  
이유정·윤승희

영상  
김록현